

HEADLINE NEWS

민간이 최대한 힘을 발휘하는 도시 조성을 위한 「협동추진 기본지침」 시행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橫濱)市는 2004년을 ‘협동원년’으로 하여 시민의 의욕과 발상, 실행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동을 통한 도시만들기’를 목표로 「협동추진 기본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市는 최근 「시민협동추진사업본부」를 설치하여 각 국(局)과 구청과의 연계 및 시청 차원의 협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市가 추구하는 ‘협동’이란, 시민의 요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지역 문제와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틀과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市는 이러한 협동에 의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의 힘을 활용하여 서로 존중하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형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62/001-1.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트랜짓 빌리지 개발계획 추진(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市)
- ② 개발권이양제도와 시장지향적인 토지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표 (워싱턴 D.C.)
- ③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스마트성장 정책 보고(플로리다)
- ④ 중산층 근로자 주택보유 지원 (로스앤젤레스)

도시환경

- ⑤ 녹지공간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연접 2주에 걸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일리노이, 위스콘신, 인디애나)

도시교통

- ⑥ 도로 상태에 따른 추가 자동차운행비용 조사·공표 (디트로이트)
- ⑦ 최장거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추진 (미국 동부연안)
- ⑧ ‘안전띠 착용 홍보캠페인’ 실시 이후 안전띠 착용률 높아져 (미국 전역)

사회복지·문화

- ⑨ ‘복지도시 특구(特區)’ 시범사업 추진 (동경)
- ⑩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 독서프로그램 실시 (샌디에이고)
- ⑪ 시립보육원이 어린이양육 지원을 위해 공원내 출장보육 실시 (동경)

행·재정

- ⑫ 공설시설 운영에 있어 지정관리자 제도의 대상시설 공표 (고베)
- ⑬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실시 (요코하마)

① '트랜짓 빌리지' 개발계획 추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놀드 슈워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는 최근 '트랜짓 빌리지(Transit Villages)' 개발 촉진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트랜짓 빌리지' 개발계획은 역세권 개발과 비슷한 개념인데 버스, 전철, 페리(ferry) 정류장을 중심으로 1/3마일(500m) 이내에 주거와 상업기능을 클러스터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랜짓 빌리지' 개발로 예상되는 효과는 직장까지 주거 근접으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감소, 기존 도시의 인프라 사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역주변의 재개발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www.mercurynews.com/mld/mercurynews/news/local/states/california/northern_california/8717304.htm?1c)

② 개발권이양제도와 시장지향적인 토지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표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도시 및 대도시권 정책센터'는 개발권이양제도(TDRs: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와 이와 유사한 시장지향적인 토지정책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개발권이양제도와 함께 'Mitigation Banking', 'Density Transfer Fees' 등 시장지향적인 토지정책을 평가·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권이양제도는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계획보다는 대도시권 지역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정치적인 합의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웹사이트의 PDF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www.brookings.edu/urban/publications/20040629_fulton.htm)

3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스마트성장’ 정책 보고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스마트성장을 위한 자금 네트워크(Funders Network for Smart Growth)’는 최근 ‘스마트성장’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도시개발에서 공간적인 위치, 도시설계 및 건축물 설계가 에너지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스마트성장’을 위한 토지 이용정책이 에너지 소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린빌딩(Green Building)과 ‘스마트성장’ 정책의 연계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웹사이트의 PDF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www.fundersnetwork.org/info-url_nocat2778/info-url_nocat_show.htm?doc_id=229179)

4 중산층 근로자 주택보유 지원 (로스앤젤레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금융권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은행과 각종 펀드단체에 의해 조성된 ‘Genesis 근로자 주택펀드’는 시에서 추진중인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의 26번가 Lincoln Heights에 165개 규모의 콘도미니엄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데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콘도미니엄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시의 중간가구 소득(median household income)의 80%에서 200% 사이에 해당해야 한다.

(socialfunds.com/news/article.cgi/1451.html)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녹지공간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연접 3개주에 걸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일리노이,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국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인디애나주 등 3개 주에 걸쳐 있는 녹지공간이 「Green Infrastructure Database Project」를 통해 디지털화될 예정이다. 디지털 도면은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일리노이주 북쪽지역, 위스콘신주 남동쪽 지역, 인디애나주 북서지역 등 14개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작업에 포함된 지역은 산지, 습지, 녹지, 야생 동·식물 서식지, 공원, 산책로, 오픈스페이스 등이 밀집되어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그동안 서로 다른 주정부와 지방 정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온 녹지공간들이 이 프로젝트에 의해 통합됨에 따라 녹지축의 연결도 및 개발로 인한 녹지축의 훼손정도가 한눈에 파악될 예정이다.

(www.dailysouthtown.com/southtown/yrtwn/south/161syt3.htm)

(www.greenmapping.org)

6] 도로 상태에 따른 추가 자동차운행비용 조사·공표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 뉴스(Detroit News)'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대도시권내 도로의 물리적인 상태 악화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동차운행비용으로 매년 477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물리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타이어 마모가 빨라지고, 자동차의 차체 구조에 무리를 주어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이번에 미국 67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시로 1년에 705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애틀랜타시는 가장 낮은 비용인 52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detnews.com/2004/commuting/0407/02/a01-193736.htm)

7 최장거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추진 (미국 동부연안)

미국의 '동부연안 녹색길 연합(The East Coast Greenway Alliance)'은 최근 미국 동부연안을 따라 최장거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에메랄드 목걸이」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뉴잉글랜드의 메인(Maine)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 미국 동부연안의 15개 주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하는 것

이다. 이미 주마다 개발된 62개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전체의 20%인 총 650마일이 완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금까지 6억달러가 소요되었으며, 2010년까지 총 15억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애나폴리스 자전거 전용로

(travel2.nytimes.com/2004/06/04/travel/escapes/04GREE.html)

8 '안전띠 착용 홍보캠페인' 실시 이후 안전띠 착용률 높아져 (미국 전역)

2003년에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었던 '안전띠 착용 홍보캠페인'의 시행 이후, 안전띠 착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안전띠 착용률은 75%였으나 캠페인 시행 후에는 79%로 약 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24세 사이의 젊은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기존의 65%에서 72%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美교통당국은 2003년 한 해 동안 「Click It or Ticket」이란 이름으로 안전띠 미착용 사례의 단속을 강화하고, 25,000,000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홍보를 50개 주에 걸쳐서 시행했다. 당국은 올해에도 30,000,000달러 규모의 라디오 광고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www.mlive.com/newsflash/health/index.ssf?/base/politics-0/1084793059240660.xml)

9 '복지도시 특구(特區)' 시범사업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복지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 특구(特區)'를 지정하여 중점적인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생활하기 편한 보편적인 디자인의 도시 東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특구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 설정, 집중적인 예산 투입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都는 이를 위해 2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각각 3년간 사업비 6억 엔(약 6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4/06/20e6e100.htm)

미국 샌디에이고를 위한 여름 독서프로그램 실시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市 공공도서관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여 여름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市에 있는 35개 공공도서관에서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리는 이 독서프로그램은, 마술쇼, 음악공연, 미술·공예 작업 등 다양한 특별 행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여름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10권의 책을 읽으면, 항공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의 무료입장권과 스포츠 모자를 선물로 주고 있다. 중·고등학생들도 책을 읽거나 도서관의 도서자료를 읽고 간략한 독후감을 작성하면,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여름 독서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고 배우며,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을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4년부터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약 26,0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40,000명 이상이 여름 독서프로그램의 특별행사에 참여했다.

(www.sandiego.gov/public-library/pdf/sumreadpr052704.pdf)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④ 시립보육원이 어린이양육 지원을 위해 공원내 출장보육 실시 (동경)

일본 東京都 조후(調布)市の '시립 가네고 보육원'의 보육사 4명은 최근 어린이 양육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공원에 직접 나가 어린이들과 놀아주는 '출장보육'을 실시했다. 1~3세의 아이들은 이날의 프로그램으로 보육사들이 선보인, 손으로 하는 인형놀이와 종이로 하는 구연동화를 흥미진지하게 보고 들었다. 또한 보육사들은 칠석제를 맞이하여 미리 준비한 작은 대나무를 칠석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이 보육원은 '출장보육'을 2001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어머니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내 공립보육원에서 '출장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 보육원 뿐으로, 실시 1달 전부터 포스터를 통해 실시일을 공고하고 있다.

(www.tokyo-np.co.jp/00/tko/20040702/1cl____tko____004.shtml)

④ 공설시설 운영에 있어 지정관리자 제도의 대상시설 공표 (고베)

일본 고베(神戸)시는 최근 공설시설(公設施設)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정관리자제도의 대상시설을 밝혔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각 시설의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여 이 제도를 도입할 여건을 조성했으며, 2006년 9월부터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설시설의 비용 삭감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시내에 있는 약 1천개 정도의 공설시설이며, 로코산(六甲山)목장, 고베 패션미술관 등의 대형시설, 지역건강센터와 모자(母子)복지시설 등 복지관련시설, 산업진흥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시설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시는 이 시설에 관계된 시설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각 시설의 절반정도를 외곽단체(시가 출자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는 민간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외곽단체의 인식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621c6b2103921.html)

④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실시 (요코하마)

최근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내 특정지역에 사업내용, 투자자본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 시세(市稅) 경감조치 및 조성금 교부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업입지 촉진지역에 투자자본액 10억엔 이상(중소기업은 1억엔 이상)의 사업계획을 실시하는 사업자이며, 기업입지 촉진지역은 미나토미라이21 지역과 케이힌(京浜) 임해부지역이다.

市の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세 경감조치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1/2을 5년간 경감해주는 것이며, 조성금 교부는 투자자본액이 50억엔 이상(중소기업은 5억엔 이상)일 경우에 위의 시세 경감조치와 함께 투자자본금의 10%를 조성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단, 상한은 1지역 1기업당 50억엔으로 한다.

(www.city.yokohama.jp/me/keizai/sinsyutu/tokuteitiiki.html)